

중·고등학생의 호·불호 학교공간 인식에 관한 연구

Second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School Spaces: What They Like and Dislike

박종향* 신나민**
Park, Jong-Hyang Shin, Na-Min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second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school spaces by researching their place preferences and the reasons for them. For the purpose, we analyzed students' written statements regarding places they like and dislike at school, which were collected from 836 middle and 1,100 high school students enrolled at 4 middle and 4 high schools, respectively. Data were transcribed, encoded, and analyzed so as to be clustered to themes revealing the students' senses of places at school.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most preferred places had to do with physical activities, including playground, auditorium, gymnasium etc., whereas high school students preferred indoor places such as classrooms; (2) the reasons for like-place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hemes: functions (physical, social, learning, and everyday activities), emotions (belonging, healing, and aesthetics),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3) bo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garded restroom as the place that they disliked most; (4) the reasons for dislike-places included physical conditions, atmosphere, person-related, subject-related, and circumstances such as the happening of violence or punishment. These may provide educators, parents, school architects and administrators with practical considerations needed for making school a better place for students at secondary schools.

키워드 : 학교공간, 장소성, 선호장소, 불호장소

Keywords : school space, sense of place, like-place, dislike-place

1. 서론

공간은 시간과 더불어 개인이 생을 영위해가도록 해주는 근본 조건 중 하나이다(송순재, 2011).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특정한 공간적 장소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인간존재에서 장소 연관을 제거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강학순, 2011). 직장에서의 직장인, 가정에서의 가장 또는 주부, 학교에서의 학생과 같이 자신의 존재는 자신의 몸을 어디에 두는지 장소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간적 주체로 자신을 정위(正位)한다는 것이기 때

문에(강학순, 2011) 청소년기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공간은 청소년들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 장소에 대한 인식은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듣는 모든 감각을 거쳐 이루어지며 장소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 기억 속에서 다시 만들어진다(Sternberg, 2004). 이러한 장소에 대한 기억은 자아를 감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기억을 통해 우리는 시간과 더불어 장소라는 맥락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Sternberg, 2013).

학교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학교 공간의 장소성에 대한 연구는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 공간에서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학교 공간에

* Ph.D. Candidate, Dept. of Education, Dongguk Univ., Korea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Education, Dongguk Univ., Korea
Corresponding Author,

Tel: 82-2-2260-3400, e-mail: naminshin@dgu.edu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 공간 가운데 좋아하는 공간과 싫어하는 공간 그리고 그 이유를 탐색하였다. 좋다, 싫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으로써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를 내포하기 때문에(곽한영, 김주영, 2013) 본 연구는 학교라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학습과 생활에 대한 중·고등학생들의 기본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혹은 싫어하는 학교공간은 어디인가?

둘째,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공간 중 특정 공간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위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 연구에는 장소성에 대한 연구,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공간에 관한 연구, 학교공간 분류에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1 장소성과 관련된 연구

장소(place)는 일반적으로 특정 위치를 가리키는 의미로 주로 물질적 공간이나 배경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물질적 배경에는 항상 우리의 인식이나 의식이 견주어진다(권영락, 황만익, 2006). 즉, 인간은 각자의 선관념(preconception)과 공동의 문화적 선개념 속에 장소를 스스로 재구성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Cross, 2001). 선관념은 각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강조하는 개념적인 수준을 넘어 공동의 문화적 선개념으로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 현상학에서는 시간적, 문화적 맥락이 주는 영향을 견주어 장소성을 ‘토폴필리아(場所愛, topophilia)’, ‘장소의 성격(characher of place)’, ‘장소의 정신(sprit of place)’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Najafi & Shariff, 2011).

장소성 연구에는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장소애착성(place attachment) 등 인간과 공간의 유대감, 애착 그리고 장소의 의미에 대한 주제들이 포함되기도 한다(Najafi & Shariff, 2011). 또한 연구자들은 장소성의 구성요소를 물리적 특성, 함축적 의미와 명시적 의미로써의 기억 그리고 관계성을 포함한 의미와 영향력, 공간 유도성, 공간과 연계된 사회적 상호작용성으로 나누기도 한다(Turner & Turner, 2006).

실증적 연구를 살펴보면, Cross(2001)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네바다(Nevada)주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장소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인터뷰 대상자와 장소의 관계를 나

타내는 속성과 지역사회 애착(community attachment)을 나타내는 속성으로 장소성을 설명하였다. 대상과 장소의 관계는 ‘자전적’, ‘정신적’, ‘이념적’, ‘내러티브적’, ‘상업적’, ‘의존적’의 5가지로 구분되며 지역사회 애착성은 장소에 대한 감정이나 특정 장소에 대한 경험적 성격을 의미하며 ‘고착성’, ‘소외성’, ‘관련성’, ‘무장소성’(placelessness)으로 구분되었다. 고착성(rootedness)은 지역사회에 대한 강한 애착, 정체성, 소속감으로 고착성을 보인 사람들은 그 장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하기를 희망하였다. 소외성은 그 장소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그다지 만족하지 않으며 이직으로 장소를 옮기거나 전학을 가는 대상자들이 경험한 장소성이었다. 관련성은 여러 곳에 거주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주로 갖는 장소성으로 한 장소보다는 주변 사람 및 외부환경에 대해 갖는 애착을 말한다. 무장소성도 장소성의 일부로 분류 되었으며 장소기반의 정체성 또는 특정 장소에 대한 애착, 감정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듯 장소성에 관한 연구는 장소와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장소에 대한 감정은 어떠한지를 드러내 주므로 사람과 장소간의 ‘살아있는 생태학적 관계(a living ecological relationship)’로 조망되기도 한다(Cobb, 1977; Lim & Barton, 2006).

2.2 아동청소년과 장소성

장소에 대한 애착성, 선호공간, 가치 있는 공간에 대한 연구는 환경, 건축학뿐만 아니라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역사학 등의 다양한 학문에서 연구되었다. 예를 들어, Hart와 Moore(1973)는 아동발달의 관점에서 환경에 대한 아이들의 태도를 설명하였다. Hart(1979)의 연구에서 K-3학년 학생들은 사회적 환경, 공동의 장소로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친구네 집’을 선호하였지만 4-7학년 학생들은 ‘내가 야구를 하고 싶어서’ 운동장을 좋아하듯 특정 장소의 기능을 더 선호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Malinowski & Thurber, 1996). Malinowski와 Thurber(1996)는 여름캠프에 참가한 8-16세 남자아이 155명을 대상으로 선호 장소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나이가 어린 아동은 특정 장소의 사용에 가치를 두는 반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심미적, 인지적 가치를 더 강조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아동의 선호 장소가 개인 주변의 집, 보육시설 등의 사회적 장소에서 점차 기능적인 장소로 바뀌며 청소년기에는 미학적 장소로 옮겨진다는 주장과 유사하다(이선영, 2008).

Andel(1990)은 아동 및 청소년이 공공장소의 어떤 기능

에 주목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장소의 기능을 5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활동성이다. 아동, 청소년에게는 야외 활동 공간이 중요하며(Elsley, 2004), 오락적 기능이 강조되는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가 선호된다(Owens, 1997, 2002). 둘째,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선호 공간으로 주로 쇼핑몰이 자주 언급되는데 몰(mall)과 같은 공간에서 이들은 타인과 만나고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Clark & Uzzell, 2002; Leiberg, 1995; Owens, 2002).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능으로 학교는 아동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Clark & Uzzell, 2002). 셋째, 회복성이다. 아동들도 성인과 같이 휴식, 안전함, 친밀감을 주는 자기 스스로의 공간을 선호한다(Korpela, 1992; Korpela & Hartig, 1996; Korpela et al., 2002).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휴식하고,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공간으로 침대를 사용하기도 하였고(Clark & Uzzell, 2002), 조용한 공간, 혼자 있거나 도망치고자 하는 공간을 선호하기도 하였다(Owens, 1994, 2002). 넷째, 잔디, 나무, 공원과 같은 자연적 요소가 있는 공간이다(Moore, 1980; Andel, 1990). 다섯째 안전한, 폐쇄된 숨겨진 공간뿐 아니라 흥미롭고 위험한 공간도 선호하였다.

장소성에 대한 연구는 공간 사용자의 관점을 통해 공간의 용도를 밝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책, 법안, 디자인 등의 실천적 분야에 공헌하기도 한다. 특히 아동과 공공장소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이 공공장소를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 조사하여 공동장소에 대한 정책, 실천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 입장을 보여준다(Elsley, 2004). Owens(2002) 역시 지역의 공공장소가 아동의 발달단계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관점이 정책 및 행정 안에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2.3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

학교공간에서의 장소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학교공간에 대한 연구가 주로 교과과정변화에 따른 기능적 재편이나 효율성에 집중하여왔고 인지발달이나 정서발달의 측면에서 학교시설이나 공간에 주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이선영, 2008). 학교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연구는 대개 선호하는 학교에 대한 이미지에 주목하여 왔다. 예를 들어, Burke와 Grosvenor(2003)은 4~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1967년 Blishen에 의해 이루어진 ‘학교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느낌’이라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연구하여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 두 시대를 견주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공간에 대해 비교하

고 있다. 연구 결과는 학교 공간이 시대를 넘어 꾸준히 사각형 모양의 교실, 감옥과 같은 학교, 동굴과 같은 학습공간으로 비유됨을 보여준다(Burke & Grosvenor, 2003). 학생들은 희망하는 학교공간에서 구형(dome)의 모양을 자주 그리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모양은 즐거움, 자유, 놀이, 재미 등을 표상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30년이 넘도록 학생들에게 문제가 되는 공간은 여전히 화장실이었다. 화장실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기물이 파손되어 불쾌한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꾸준히 관리가 요구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Burke & Grosvenor, 2003).

또한 영국 가디언교육에서 ‘우리가 원하는 학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요소로는 ‘아름다운’, ‘편안한’, ‘안전한’, ‘귀기울이는’, ‘융통성있는’, ‘적절한’, ‘존경받는’, ‘담이 없는’, ‘모두를 위한’의 9가지가 제시되었다(Birkett, 2001). 9년 뒤 영국 가디언교육이 같은 주제로 다시 조사한 결과 2001년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2011년에 조사한 학생들은 ‘활동적인’, ‘차분한’, ‘편안한’,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전문적인’, ‘융통성있는’, ‘친절한’, ‘귀기울이는’, ‘함께하는’, ‘국제적인’, ‘외부적인’, ‘과학 기술적인’ 성격의 학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irkett, 2011).

2.4 학교공간 분류

학교공간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공간을 기능이나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해 왔다. 조진일(2011)의 연구에서 학교는 교수·학습공간, 지원공간, 관리/행정공간, 공용공간, 옥외공간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교수·학습공간에는 일반교실, 과목별교과교실, 특별교실과 다목적교실이 포함되었다. 지원공간에는 학습지원실과 교원지원실, 학생지원실, 그리고 기타지원실이 있다. 관리/행정공간에는 교무실, 전산실, 생활지도실, (진로)상담실, 보건실 등이 있으며, 공용공간은 현관, 홀, 복도 등을 가리킨다. 옥외공간은 체육관, 생태학습장, 옥외휴게공간 등이 포함되었다.

과학교등학교 건축계획에서 고려할 사항을 밝힌 조한희, 이화룡(2011)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시설분석을 교과교실, 전문교과교실, 특별교실, 학생지원시설, 교사지원시설, 관리시설, 기타(강당, 식당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정주성(2012) 연구에서는 학습, 체육, 생활, 관리, 통로, 기타공간으로 구분하였고, 이화룡 외(2012)연구에서는 교수·학습공간, 학생지원공간, 교원지원공간, 옥외체험지원시설, 관리공간, 공용공간, 기타시설로 학교 공간을 구분하였다.

경기도교육청(2008)의 교육시설 설계매뉴얼에서는 학교 공간을 일반교실, 특별교실(과학실, 실습실, 미술실, 음악실, 기술실, 컴퓨터실 등), 공통학습실(시청각실, 예절실), 교원지원시설(교무실, 휴게실, 상담실, 방송실), 관리시설(교장실, 회의실, 행정실, 보건실, 숙직실), 기타시설(급식실, 다목적실, 양치실, 화장실, 현관, 계단, 복도)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외의 한 예로 아일랜드 교육기술부(DoES¹⁾)에서 제시한 2008년 초등교육과 초등이후교육의 학교건축에 대한 시공기준 TGD(Technical Guidance Documnet)-021에서는 교실, 도서실·일반 지원공간, 일반목적실, 학교행정실, 다용도실,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 위생시설 등으로 학교 공간을 구분하고 각 공간에 대해 면적과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4개 중학교와 4개 고등학교 재학생들이다. 이 학교들은 2013년 11월 교과교실제 운영으로 인해 학교공간 재배치 및 보수가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연구 참여자는 중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으로 학년당 4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847명(남 547명, 64.58%, 여 289명, 34.12%, 무응답 11명, 1.3%)의 중학생과 1,100명(남 524명, 47.59%, 여 576명, 52.41%)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에는 각 학교의 소재지, 학생수, 학급편성을 제시하였으며 <표 2>에는 8개교의 응답자 현황을 제시하였다.

3.2 설문도구

연구 자료는 <학생의 학교 건물(공간)·학교생활에 대한 평가 및 실태 조사>연구를 위해 실시된 설문 가운데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문항들을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 문항은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와 이유, 그리고 싫어하는 장소와 그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기입하도록 개방형 질문으로 제시되었다(예: 우리 학교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와 그 이유를 적어 주세요).

3.3 자료분석

학생들이 선호, 비호하는 학교공간에 대한 분류는 교수·학습공간, 관리·행정공간, 지원공간, 공용공간, 옥외공간으

1)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Table 1. General features of participant schools

School	Location	No. of classrooms (No. of students)	School	Location	No. of classrooms (No. of students)
Middle	A	GangSeoGu 12(250)	High	E	JinGu 18(819)
	B	BukGu 18(591)		F	BukGu 16(1,218)
	C	JinGu 22(726)		G	SeoGu 16(716)
	D	SeoGu 15(471)		H	NamGu 14(796)
Total		67(2,038)	Total		64(3,549)

Table 2. Number of participant students

School		2nd grade	3rd grade	School		1st grade	2nd grade
Middle	A	72	68	High	E	117	119
	B	115	124		F	155	154
	C	119	123		G	163	119
	D	112	103		H	135	138
Total		418	418	Total		570	530

Table 3. Classification of school spaces

Purpose	Spaces
Teaching & Learning	Classroom(교실), Subject Classroom(교과교실), Art, music and physical Classroom(예체능실)
Administration & Management	Teacher's room(교무실), Career room(진로활동실), Health room(보건실), Weeclass(위클래스), Counseling office(상담실)
Support	Library(도서실), Book cafe(북카페), Study hall(자습실), Homebase(홈베이스), Club room(동아리실), Media room(미디어실)
Public	Cafeteria(급식실), Snack bar(매점), Hall(복도), Stairs(계단), School gate(교문), Toilet(화장실)
Outdoor	Playground(운동장), Auditorium(강당), Gym(체육관), Multi-purpose room(다목적실), Other school areas(그 외 교정)

로 구분하여 빈도분석 되었다(조진일, 2011)(<표 3> 참고).

학생들이 선호, 비호하는 공간에 대한 응답 분석은 엑셀(Excel 10.0)을 활용하였으며 학교급간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료를 따로 분석하였다. 또한 학교마다 특별하게 명목된 공간은 그 기능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C중학교의 예지실은 탁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다목적실로 옥외공간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A중학교의 한솔관은 컴퓨터가 비치된 미디어실로 구분되어 지원실에 포함되었다.

학생들의 선호, 비호하는 학교공간에 대한 이유는 학생들이 응답한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여 주제에 따라 귀납적으로 분석되었다. 이 자료 분석과정은 김영천(1998)과 Belenk외(1986)의 질적 연구 분석을 참고하였으며, 그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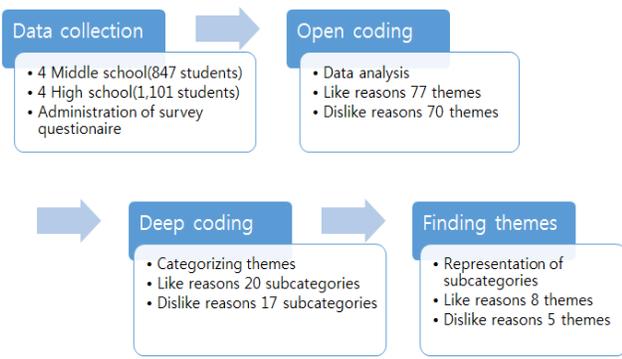


Figure 1. The process of data analysis

김영천(1998)에 따르면, 질적 자료 분석의 과정은 크게 전사, 코딩, 주제 발견의 세 과정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 전사과정에는 학생들의 응답을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것에 해당한다. 학생들의 응답내용은 다소 짧은 내용의 1-3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코딩은 주저자 1인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 코딩 진행 과정에서 공동연구자와 함께 분류 및 범주화를 논의함으로써 분석 과정의 신뢰도를 보완하였다. 초기코딩에서는 학생들의 응답진술 전문을 중요한 진술로 판단하여 학생들의 언어를 단순한 형태로 바꾸었다. 초기코딩을 끝낸 후 중복된 내용에 이름을 붙이는 개방코딩 작업을 실시한 결과, 좋아하는 공간의 이유 77개, 싫어하는 공간의 이유 70개의 내용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때 다중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응답은 복수 응답으로 처리하여 각각의 의미를 처리하였다. 예를 들면 ‘휴식을 가지기에도 좋고 공부를 해도 돼서 좋다’는 문장은 ‘휴식을 갖는다’와 ‘공부를 한다’의 2문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심층코딩은 개방코딩을 심화시키는 코딩으로 반복된 내용을 여러 주제어로 이끌어 내어 이를 종합하여 구조화하는 작업이다(김영천, 2012). 심층코딩을 통해 발견된 주제는 좋아하는 공간의 이유는 20개, 싫어하는 공간의 이유는 17개로 구분되었다. 마지막으로 주제 발견 단계에서는 학교공간의 이유는 8개, 싫어하는 학교공간의 이유는 5개의 하위범주로 구분되었다(<표 5, 6> 참고).

4. 연구 결과

4.1 호불호(好不好) 공간

학교급별 호·불호 공간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4>와 같다. 중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학교 공간은 운동장, 강당 및 체육관 등의 옥외공간(43.31%)이었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공간은 공용공간(19.36%)이었으며 공용공간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공간으로 급식실 및 매점(29.03%)이 언급

Table 4. Like/ dislike school spaces by school levels (%)

Space	Like Space		Dislike Space	
	Middle (No.)	High (No.)	Middle (No.)	High (No.)
Teaching & learning	19.13 (162)	28.36 (312)	21.37 (181)	17.73 (195)
Administration & Management	6.49 (55)	1.18 (13)	6.73 (57)	6.45 (71)
Support	14.64 (124)	12.91 (142)	9.80 (83)	7.91 (87)
Public	19.36 (164)	13.27 (146)	28.45 (241)	26.36 (290)
Outdoor	24.44 (207)	19.64 (216)	3.42 (29)	3.00 (33)
Non-response	15.94 (135)	24.64 (271)	30.24 (256)	38.55 (424)
Total	100 (847)	100 (1,100)	100 (847)	100 (1,100)

되었다. 고등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교수·학습공간(28.36%)으로 특히 일반교실(26.0%)을 좋아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두 번째로 선호하는 공간은 옥외공간(19.64%)이었으며 이 중 교정 외의 공간(7.82%)을 선호하였다. 그 외 공용공간(13.27%) 중 급식실 및 매점(8.82%)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호 공간에 대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반응은 두 집단이 거의 유사하였다. 가장 싫어하는 공간은 공용공간(중 28.45%, 고 26.36%)으로 특히 화장실을 가장 싫어하였다(중 39.54%, 고 19.18%). 두 번째로 싫어하는 공간은 교수·학습공간이었다(중 21.37%, 고 17.73%). 특히 일반교실(중 20.50%, 고 13.55%)이 교과교실(중 17.36%, 고 4.18%)보다 더 싫어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관리/행정 공간에서는 특히 교무실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중 10.88%, 고 6.00%). 무응답의 경우에는 선호하는 공간(중 15.94%, 고 24.64%)보다 불호하는 공간(중 30.24%, 고 38.55%)의 비율이 더 높았다.

4.2 학교공간 호·불호(好·不好)에 대한 이유

가. 선호이유

중·고등학생이 학교 공간을 좋아하는 이유는 크게 기능, 정서, 그리고 물리적 조건의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이 세 가지는 8가지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하위범주에 대한 코드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한 학생의 답변에서 2~3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각 범주의 총합은 응답한 학생 수를 초과한다. 학교급에 따라 주제별로 선호공간 이유를 빈도분석 한 결과, 중학생은 기능(47.23%)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그 다음으로 감정

Table 5. The Reasons for students' liking a certain school space (% , No.)

Reasons	Themes	Sub-categories	Categories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Allowing for a variety of activities including games and sports (다양한 운동, 놀이를 한다)	Space for varying kinds of activities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공간)	Physical activities (신체활동)	Function (기능)	47.23	17.12 (145)	9.08 (100)	26.79
Table tennis/ football/ jumping/ walking/ jogging (탁구/축구/운동/뛰다/산책한다/걷는다)	Space for acting freely (자유롭게 활동하는 공간)						
Talking to friends, Meeting many friends/ having consultation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여러 친구들을 만난다/ 상담한다)	Space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공간)	Social activities (사회활동)					
My close friends are out there/ There is a good teacher(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 좋은 선생님이 있다)	Space in which favorite people are(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공간)						
There is a lot to eat/ Having meals/ Going to restroom/ Going home(먹을 게 많다/ 밥 먹는다/ 화장실 간다/ 집에 간다)	Space for eating, reproduction and coming back home(섭식, 생식, 귀가 활동을 하는 공간)	Everyday activities (생활활동)					
Reading/ Studying/ Self-directed learning(책볼 수 있다/ 공부가 잘된다/ 학습할 수 있다)	Space for learning (학습이 가능한 공간)	Learning activities (학습활동)					
There is a computer/ Internet/ Participating in club activities(컴퓨터/ 인터넷이 있다/ 동아리 활동한다)	Space for leisure activities (여가 활동이 가능한 공간)						
There is(are) my(our) desk/ Things/ Space/ Classroom (내(우리) 자리·물건/ 우리만의 공간/ 우리 반이라서/ 내 책상·물건이 있다)	Space for having a sense of belongingness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	Sense of belongingness (소속감)	Emotion (정서)	24.91	2.72 (23)	6.27 (69)	37.69
Being familiar with the space/ Having been there for long time(익숙하다/ 가장 오래 생활한다)	Familiar space (오래되어 익숙한 공간)						
Feeling comfortable/ cozy/ safe(편안하다/ 아늑하다/ 안정적이다)	Comfortable space(편안한 공간)	Healing (회복감)					
Fun/ free(재미있다/ 자유롭다)	Joyful space(즐거운 공간)						
Sleeping/ Lying/ Taking a rest(잔다/ 눕는다/ 쉰다)	Space for a break(쉴 수 있는 공간)	Aesthetics (심미감)					
Looking like a park/ Trees are beautiful/ Changing atmosphere as time goes by(공원느낌/ 나무가 이쁘다/ 계절마다 분위기가 다르다)	Sense of beauty from the nature (자연적 요소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Unique design of a desk(책상이 독특하다)	Sense of beauty from the artifacts (인위적 요소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Cool/ Warm/ Bright/ Splendid atmosphere (시원하다/ 따뜻하다/ 밝고 화사한 분위기)	Atmosphere(분위기)						
Wide/ Open/ Not crowded(넓다/ 트여있다/ 붐비지 않는다)	Wide and clean space (넓고 깨끗한 공간)	Physical Features (물리적 특성)	Condition (조건)	18.89	18.89	12.53 (138)	12.53
No need for moving(이동하지 않는다)	Convenient space (편의성이 갖추어진 공간)						
Quiet(조용하다)	Quiet space(조용한 공간)						
There is artificial grass/ The chairs are soft/ Facilities are good(인조잔디가 있다/ 의자가 푹신하다/ 시설이 잘 되어있다)	Space with good facilities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						
Pleasant/ Clean(쾌적하다/ 깨끗하다)	Hygienic space(청결한 공간)						
Total					91.03(771)	77.02(848)	

(24.91%), 조건(18.89%)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고등학생은 감정(37.69%), 기능(26.79%), 조건(12.53%)의 순서로 학교공간을 선호하는 이유를 언급하였다.

1) 기능

선호 공간의 이유로 구분된 ‘기능’은 공간에서 학생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학생들의 응답이 ‘기능’에 포함되었다. 기능에는 신체활동, 사교활동, 일상활동 그리고 학습활동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첫째 신체활동 범주이다. 신체활동 범주에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기능이 강조되었다. 학생들은 탁구, 축구, 농구, 체육활동 등의 격렬한 신체 움직임을 요구하는 활동이나 산책, 걷기와 같은 움직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을 좋아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운동이나 놀이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놀 수 있다’, ‘놀기 좋다’로 진술한 자료들도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둘째, 사교활동 범주이다. 이 범주는 학생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6. The reasons for students' disliking a certain school space (% , No.)

Reasons	Themes	Sub-categories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Get injured (다친다)	Dangerous space(위험한 공간)	Physical features (물리적 특성)	52.54(445)	49.55(545)
Old/ Broken(낡았다/ 고장났다)	Old & dysfunctional space (장소의 기능 손실 및 낙후된 공간)			
Having to move/ Uncomfortable/ Hard-taking/ Far(이동해야 된다/ 불편하다/ 힘들다/ 멀다)	Inconvenient and uncomfortable space (장소의 편이성이 떨어져 불편한 공간)			
Dirty/ Messy(더럽다/ 지저분하다.)	Unhygienic space(위생상태가 안좋은 공간)			
Cold/ Hot(춥다. 덥다)	Cold or hot place(춥거나 더운 공간)			
No sunlight/ Dark(햇빛이 없다/ 어둡다)	Dark space(어두운 공간)			
Bad smell/ Cigarette smell/ Mold smell (악취/ 담배 냄새/ 곰팡이 냄새)	Smelly space(악취 나는 공간)			
Narrow/ Crowded/ Lack of seats (좁다/ 사람이 많다/ 자리가 부족하다)	Narrow space(좁은 공간)			
Noisy(시끄럽다)	Noisy space(시끄러운 공간)			
Depressed/ Dark/ Prison-like (우울하다/ 어둡다/ 감옥같다)	Space giving the feelings of depression and anxiety(우울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주는 공간)	Atmosphere (분위기)	10.51(69)	8.55(94)
Stuffy/ Pressed/ Bored (갑갑하다/ 답답하다/ 지루하다)	Space giving the feelings of stifling and boredom(답답하고 지루한 분위기를 주는 공간)	Human factor (인적 요인)	3.42(29)	3.00(33)
Nagging/ Teachers are there/ Burdened (잔소리/ 교사가 있다/ 부담된다)	Space where teachers whom I hate are (싫어하는 교사가 있는 공간)			
Senior students(선배)	Space where students whom I hate are (싫어하는 학생이 있는 공간)	Subject matter (교과목)	2.83(24)	0.64(7)
Hating math/ Uninteresting subject (수학이 싫어서/ 재미없는 과목)	Space where I have to learn boring subject matters(싫어하는 과목을 학습하는 공간)			
Studying/ Taking a class/ Exams (공부한다/ 수업해서/ 시험치는 공간)	Space for learning (학습하는 공간)	Special situation (특정 상황)	9.09(77)	4.09(45)
Bullying(괴롭힌다)	Space where school violences happen (폭력이 일어나는 공간)			
Punishment/ Being scolded (벌점준다/ 가면 혼나는 일)	Space where I get scolded (선생님께 혼나는 공간)			
Total			78.39 (664)	65.82 (724)

대인관계에는 친구만이 아니라 교사와의 접촉도 해당되며, 친구들도 새로운 친구, 친한 친구, 여러 명의 친구들 등으로 자신들만의 범주가 따로 존재하였다. 즉,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 ‘새로운 친구들과 마주친다’, ‘친구들과 논다’, ‘교사와 상담한다’ 등의 이유로 특정 공간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을 좋아하기도 하였다.

셋째, 생활활동 범주에는 섭식, 생리적 작용, 귀가 활동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학생들은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 매점, 급식실, 교실 등의 공간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화장실을 간다든지, 집에 가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넷째, 학습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특정 공간을 좋아하기도 했다. 학습활동에는 독서 및 좋아하는 교과목에 대한 학습이나 자율학습이 포함되었다. ‘책이 많다’,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 ‘자습할 수 있다’, ‘음악이 좋다’, ‘미술이

좋다’ 등의 학습활동이 언급되었고 그 외 여가활동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공간을 좋아하기도 하였다.

2) 정서

정서에 해당되는 하위 범주는 소속감, 회복감, 심미감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소속감은 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거나 ‘우리’, ‘나’라는 단어를 사용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응답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반(교실)이기 때문에’, ‘내 책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등의 응답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학급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기타 특정 공간에 오래 있기 때문에, 익숙한 느낌 때문에 그 공간을 좋아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둘째, 회복감은 편안함, 자율·재미, 그리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행동에 대한 진술을 포함한다. 즉, 어떤 공간에

서 편안함, 아늑함, 안정, 평화로움, 재미, 즐거움, 자유로움 등을 느낄 때 학생들은 그 공간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감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정적 행동으로는 ‘잔다’, ‘눕는다’, ‘쉬다’가 있었으며 이때의 행동은 운동을 위한 신체 활동이 아닌 쉼(休)을 통해 심신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심미감은 학교공간의 녹지나 자연 공간 혹은 책상의 디자인 같은 조형미로부터 긍정적인 느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학교의 나무나 녹지의 분위기 등을 체험하면서 감동을 주는 경관이 있는 공간을 좋아하였다. 또한 디자인이 독특한 공간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건

물리적 조건의 특성도 학생들이 공간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물리적 특성으로는 넓이, 편이성, 소리, 시설, 청결, 빛, 온도, 바람 등 다양한 요인이 진술되었다. 학생들은 넓고, 트인 공간, 적은 인원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선호했다. 또한 교과 수업은 이동이 많지 않은 편리한 공간을 좋아하기도 하였으며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공간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인조 잔디, 의자, 책상 등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공간을 좋아하였으며 쾌적하고 깨끗한 것도 공간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로 거론되었다. 기타 밝고 화사한 분위기, 시원한 곳, 따뜻한 곳, 바람이 잘 부는 곳 등의 채광, 열, 온도 환경이 잘 갖추어진 공간이 좋다는 응답도 있었다.

나. 불호(不好) 이유 : 불쾌감

학생들이 특정 학교 공간을 싫어하는 이유는 물리적 환경, 공간 분위기, 인적 요인, 교과목, 그리고 특정 상황 및 활동의 5가지 하위범주로 구분되었다. 첫째, 물리적 조건은 중학생의 52.54%, 고등학생의 49.55%가 교내의 특정 공간을 싫어하는 이유로 꼽아 불쾌감을 초래하는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물리적 조건 범주에는 위험한 공간, 장소의 기능이 손실되거나 낙후된 공간, 편이성이 떨어진 공간,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공간, 좁거나 어두운 공간 등이 언급되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습기찬 공간, 시끄러운 공간, 좁거나 더운 공간, 너무 좁은 공간, 복잡한 공간, 냄새가 나는 공간, 더럽거나 지저분한 공간, 이동 거리가 멀어 불편한 공간, 시설 및 비품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간들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오르내리는 상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 수업 이동시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공간을 싫

어하였다. 여기 해당되는 공간으로는 화장실, 휴베이스, 복도 및 계단, 급식실이 있었고 학교에 따라 교과교실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둘째, 학생들은 공간에서 느끼는 분위기 때문에 특정 공간을 싫어하기도 하였다. 이는 ‘답답하다(갑갑하다)’, ‘딱딱하다’, ‘지루하다(재미없다)’, ‘어둡다(감옥같다)’, ‘긴장된다’, ‘짜증난다’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 가운데 ‘긴장된다’, ‘짜증난다’의 응답은 주로 교무실 또는 생활지도부실을 싫어하는 이유로 언급되었고, ‘답답하다’, ‘딱딱하다’ 등의 표현은 교실 또는 교과교실을 싫어하는 이유로 나타나기도 했다.

셋째, 인적 요인이다. 싫어하는 사람, 교사나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공간이 싫어하는 장소의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중학생의 3.42%(29명), 고등학생의 3.00%(33명)이 인적요소 때문에 특정 공간이 싫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로 싫어하는 교사나 선배가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중 27명, 고 28명). 싫어하는 교사가 아니더라도 교사가 있는 공간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다. ‘샘들이 있다’, ‘샘들이 많다’, ‘샘들이 싫다’는 응답이 이에 해당된다.

넷째, 교과목 범주이다. 싫어하는 과목을 학습하는 공간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여기에 포함된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수업이 진행되고 책을 읽는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공간 자체를 의미한다. ‘공부해야해서’, ‘책을 읽어야 해서’와 같은 응답이 학습하는 공간에 포함되었다. 그 외 ‘수학이 싫어서’, ‘미술이 싫어서’와 같이 교과교실을 싫어하기도 하였고 체육을 싫어하는 학생은 강당과 운동장을 싫어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특정 상황 범주으로써 폭력이 일어나는 공간과 선생님께 혼나는 공간이 여기에 해당된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특정 상황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교사로부터 혼나거나 벌점을 받는 장소와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로는 교무실, 교문, 강당 등이 언급되었다. 특히 중학생들의 응답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공간이 싫다는 응답이 있었고 매점, 화장실에서 갈취가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가면 혼나는 일 밖에 없으니까’, ‘벌점 준다’, ‘지적당할 것 같아서’ 등의 내용이 이 범주에 해당되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학교공간 가운데 좋아하는 곳과 싫어하는 곳 그리고 그 호·불호에 대한 이유를 조사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 공간이라는 장소에 대한 인식을 이해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학생 847명과 고등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중·고등학생과 학교공간의 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은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학교급별 분석 결과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선호하는 공간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단일 공간으로는 운동장, 그 밖에 강당, 체육관, 다목적실 등 옥외 공간을 선호한 비율이 높은 반면(24.44%), 고등학생은 일반교실을 포함하여 교수·학습 공간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28.36%). 이런 결과는 중학생의 경우, 실내에서 일어나는 학습보다 옥외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을 더 즐기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자신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친숙한 공간을 좋아한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중·고생의 차이는 선호 공간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은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이유 때문에 특정 공간을 좋아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47.23%), 고등학생의 경우 소속감, 회복감, 심미감 등의 정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37.69%).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장소 선호를 유도하는 이유로 기능, 정서, 물리적 조건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이는 8가지 하위범주로 구성되었다. 선호하는 학교 장소에 대한 8가지 하위범주는 아이들의 장소 애착을 이끄는 요인을 밝힌 Andel(199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Andel의 연구에서는 활동성, 대인관계, 다양성, 자연적 요소, 친밀·근접·안전성이 언급되었다.

셋째, 학생들이 공간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분석 결과는 중·고생 모두 '회복감'이 단일 주제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회복감은 편안함, 자유, 즐거움의 감정 이외에도 쉼(休) 행위를 의미하며 중학생의 20.78%, 고등학생의 23.98%가 회복감을 이유로 특정 공간을 좋아하였다. 회복감의 강조는 Korpela 외(1989, 2002)와 Malinowski와 Thurber(199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Korpela 외(1989, 2002)는 두 번의 연구에서 9-13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공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아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장소를 선호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조용히 있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linowski와 Thurber(1996)의 연구에서도 좋아하는 공간과 회복의 경험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아이들의 감정은 행동과 직결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신경심리학에 기반을 둔 공간 연구에서는 공간이 심신의 치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Sternberg, 2009). 따라서 향후 학교 공간 디자인에서는 교수-학습 기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개발을 위한 치유 및 휴식 공간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학교 공간 및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두 집단 모두 공용 공간 가운데 화장실을 가장 싫어하였고, 어떤 공간을 싫어하는 이유로서는 그 공간의 분위기나 인적요소, 교과목, 특정 상황보다 물리적 조건이 가장 큰 이유로 부각 되었다. 화장실이 학교 공간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국내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영국에서도 30년이 넘게 학생들에게 문제가 되는 공간은 화장실이었다(Burke & Grosenot, 2003), 국내의 한 프로젝트에서도 학교 공간 개선 사업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된 곳이 화장실이었다(신나민, 박현주, 2009). 본 연구 결과와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학교 공간에 대한 주관적 응답을 피한 무응답 학생 비율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무응답은 질문에 대해 응답할 내용이 없거나 응답하고 싶지 않은 상태를 반영하므로 질문에 대한 무관심 혹은 공간에 대한 일종의 무장소성(placeless)을 반영할 수 있다. 무장소성은 특정 장소에 대한 정서 부족, 혹은 장소 기반 정체성의 부족을 의미한다(Cross, 2001). 본 연구에서 좋아하는 공간에 대한 무응답은 중학생이 15.94%, 고등학생이 24.64%였으며 싫어하는 공간에 대한 무응답은 중학생이 30.24%, 고등학생이 38.55%로 조사되었다. 유년기에 좋아하거나 싫어했던 공간에 대한 기억은 자기조절, 감정과 연관되어 성장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Koperla et, 2002). 따라서 중·고등학생들의 학교공간에 대한 감정이나 기억은 단순히 간과할 사안이 아니며 무장소성 응답 비율이 고등학생에서 더 높다는 것은 이들이 정적이건 부적적이건 학교에 대한 정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이 1~3개의 단문으로 진술되어 좀 더 심층적인 응답을 얻기 힘들었다. 둘째, 두 명의 연구자가 질적 분석에 참여 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 분류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거나 제 3자를 통한 재검증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한 도시의 공립학교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국내 중·고등학생 전체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넷째, 조사의 시기가 교과교실제 실시를 위해 학교 공간 구성이 변화된 직전이었으므로 변화된 공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아직 친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의 학교 공간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같은 연구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급별이 아닌 남녀 성별에 따라 학교 공간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장소성은 공간에 대한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경험, 기억에 의한 의미 및 영향력, 그리고 장소로 인해 유도되는 행동과 장소와 연관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한다(Turner & Turner, 2006).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좋아하는 공간, 싫어하는 공간과 그 이유를 탐색함으로써 이들이 학교 공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학교공간은 단순히 학습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설립되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회복적, 신체활동적, 심미적, 사회 관계적 기능이 함께 수반되는 장소이므로 학생들이 거주하는 데 쾌적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Andel. J. V., Place children like, dislike, and fear. *Children's Environments Quarterly*, 7(4), 24-31, 1990
2. Burke, C., & Grosvenor, I., *The School I'd like: Children and young people's reflections on an Education for 21st century*. NewYork.: RoutledgeFalmer, 2003
3. Birkett, D., *The school We'd like*. <http://www.theguardian.com/education/2001/jun/05/schools.uk7>, June. 5. 2001
4. Birkett, D., *The children's Manifesto*. theguardian. <http://www.theguardian.com/education/2011/may/03/school-i-would-like-childrens-manifesto>. Mar. 3. 2011
5. Cho, Jin-II, *Research on school facilities criteria*.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ion, 2011
6. Cho, Han-Hee, Lee, Hwa-Ryong, A study on the space planning for science high school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18(6), 3-14. 2011
7. Clark. C., & Uzzell, D. L., The affordances of the home, neighbourhood, school and town centre for adolescent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2, 95-108, 2002
8. Cobb, E., *The ecology of imagination in childhoo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77
9. Cross. J. E., What is sense of place?, Prepared for age 12th Headwaters conference, Western State College. 2001
10.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in Ireland, <http://www.education.ie/en/School-Design/Design-Guidance/>.
11. Elsley, S., Children's experience of public space. *Children and society*, 18, 155-164, 2004
12. Flutter, J., 'This place could help you learn': student participation in crating better school environments. *Educational Review*. 58(2). 183-193. 2006
13. Gyonggi Provinial Office of Education, *Educational facilities manual*, 2008.
14. Greenfield. S. *BBC Brain Story : Unlocking Our Inner World of Emotions, Memories, Ideas & Desires*. Korea translation edition, Chiho, 2004
15. Hart, R. A., & Moore, G. T., The development of spatial cognition: a review. Down, R. M., & Stea. D.(Eds), *Image and Environment: Cognitive mapping and spatial behavior*, 246-288, New Brunswick : Aldine. 1973
16. Im, Ha-Na, Kang, Do-Won, Choi, Chang-Gyu, Effects of placeness cognition characteristics on behavioral intentions - The case of Hongik University area and the cultural district of Daehakro Street in Seoul, *Urban Design Institue of Korea*, 14(2), 113-126, 2013
17. Kang, Hak-Soon. *Being and space, M. Heidegger's 'Topologie des Seins' and the flow of ides*, Seoul: Hangilsa. 2011
18. Kim, Young-Chun, *Qualitative Methodology I: Bricoleur*, Seoul: Academy press, 2012
19. Korpela, K., Adolescents' favourite places and environmental self-regul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2, 249-258, 1992
20. Korpela, K., & Hartig, T., Restorative qualities of favourite plac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6, 221-233, 1996
21. Korpela. K., Kytta. M., & Hartig, T., Restorative experience, self-regulation, and children's place preferenc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2, 338-389, 2002
22. Kwak, Han-Young, Kim, Ju-Young. The effect of the attitude towards school rules on Law-abiding behaviors in high school students.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8(1), 1-30, 2013
23. Kwon, Young-Rak, Hwang, Man-Ik, The significance of sense of place in environmental education, *Environmental Education*, 18(2), 55-65, 2005
24. Shin, Namin, Park, Hyun-Ju, A study on the design

- effects of public school environments: Analyzing the perceptions of students and teacher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5
25. Song, Sun-Jae, Talk to Education by imagination: Pedagogical introspect about Space, Time, Sound and Color, Seoul: Morning dew, 2011
26. Rieh, Sun-Young, An analysis of outdoor space in elementary school design based on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sense of place for children: With focus on the spatial planning before the occupatio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15(5), 13-20, 2008
27. Jeong, Joo-Seong, An analysis of transition about architectural space on the elementary schools with the change of policy for school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19(2), 3-12, 2012
28. Lee, Hwa-Ryong, Rhew, Choon-Geun, Oh, Se-Hee, Park, So-Young, A study on the space planning for unified school and appropriat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following the merger and abolition of small schools in rural area,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19(3), 21-32, 2012
29. Lieberg, M., Teenagers and public space. Communication research, 22, 720-744, 1995
29. Lim, M., & Barton, A. C., Science learning and a science of place in a urban middle school. Culture studies of science education, 1, 107-142, 2006
30. Malinowski, J. C., & Thurber, C. A., Developmental shifts in the place preference of boys aged 8-16 year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6, 45-54, 1996
31. Moore, R. C., Collaborating with young people to assess their landscape values. Ekistics, 291, 128-135, 1980
32. Najafi, M. & Shariff, M., The Concept of Place and Sense of Place In Architectural Studies. 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5, 951-957, 2011
33. Owens, P. E., Teen places in sunshine, Australia: Then and now. Children's environment, 11(4), 292-299, 1994
34. Owens, P. E., Adolescence and cultural landscape: public policy, design decision, and popular press reporting. Landscape and urban planing, 39, 143-166, 1997
35. Owens, P. E., No teens allowed: The exclusion of adolescents from public spaces. Landscape Journal, 21, 145-163, 2002
36. Steele, F., The sense of place. Boston: CBI publishing company, Inc, 1981
37. Sternberg. E. M., Healing space. Korean translation, TheQuest, 2013
38. Turner. P., & Turner. S., Place, Sense of Place and Presence. Presence: Teleoperators and Virtual Environments. 15(2). 204-217, 2006

접수 2014. 9. 29
1차 심사완료 2014. 11. 4
게재확정 2015. 1. 23